

Catholic Parish Faith Education for Adolescents as a Locus of Integral, Liturgical, and Relational Personal Formation: A Study in Religious Education Based on Antiqua et Nova

Hongjoo Kim^{*}
Gyeseong High School

Abstract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lucidate, on the basis of the Catholic anthropology of Antiqua et Nova (2025), the educational meaning of Catholic parish faith education for adolescents as a locus of integral, liturgical, and relational personal formation.

[Contents] To this end, this study analyzes Antiqua et Nova and related Church documents, the Catholic personalist tradition of Wojtyła, Guardini, and de Lubac, and general educational theories. The analysis clarifies the formative meaning of the three domains of parish faith education: Sunday school forms learners as persons who interpret the meaning of their lives in light of the Word; participation in the Mass and sacraments forms them as persons who live out the faith through body, time, and the senses; community activities form them as persons who discover their charisms in hospitable communion.

[Conclusions] Two conclusions follow. First, the essence of parish faith education for adolescents lies not in the transmission of information but in integral, liturgical, and relational personal formation. Second, for such formation to be realized, Sunday school should be reorganized as a place of interpretive circulation, the youth Mass as a liturgical environment of active participation, and the parish community as a network of hospitality and personal accompaniment.

[Keywords] parish faith education for adolescents, personalist anthropology, Antiqua et Nova, integral · liturgical · relational personal formation, non-formal education

^{*} **Corresponding author** Hongjoo Kim (Teacher, Gyeseong High School)
E-mail : starriday@gmail.com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s ©The Kore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Religious Education

통합적 · 전례적 · 관계적 인격 형성의 장으로서 가톨릭 본당 청소년 신앙교육: 「Antiqua et Nova」(2025)에 기초한 신앙교육학적 고찰

김홍주

계성고등학교 교사

요 약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Antiqua et Nova」(2025)의 가톨릭 인간학에 기초하여, 가톨릭 본당 청소년 신앙교육이 통합적 · 전례적 · 관계적 인격 형성의 장으로서 지니는 교육학적 의미를 규명하는 데 있다.

[연구 내용] 이를 위해 본 연구는 「Antiqua et Nova」와 관련 교회 문헌, 보이티와 · 파르디니 · 드 뤼박의 가톨릭 인격주의 전통, 일반 교육학 이론을 문헌연구의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본당 청소년 신앙교육의 세 영역이 지니는 형성적 의미가 다음과 같이 규명되었다. 주일학교는 학습자가 말씀에 비추어 자기 삶의 의미를 해석하는 통합적 인격 형성의 장이고, 미사와 성사 참여는 학습자가 몸과 시간과 감각으로 신앙을 살아내는 전례적 인격 형성의 장이며, 공동체 활동은 학습자가 환대적 친교 안에서 자기 은사를 발견하는 관계적 인격 형성의 장이다.

[결론]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당 청소년 신앙교육의 본질은 정보 전달이 아니라 통합적 · 전례적 · 관계적 인격 형성에 있다. 둘째, 이러한 형성이 실현되기 위해서 주일학교는 해석적 순환의 자리로, 청소년 미사는 능동적 참여의 전례적 형성 환경으로, 본당 공동체는 환대와 인격적 동반의 관계망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주제어] 본당 청소년 신앙교육, 인격주의 인간학, Antiqua et Nova, 통합적 · 전례적 · 관계적 인격 형성, 비형식 교육

I. 서론

생성형 인공지능의 급속한 확산은 교육 현장의 학습 수행 방식만이 아니라 교육이 전제해 온 인간 이해 자체를 흔들고 있다. 과제 작성·요약·문제 해결의 자동화는 학습의 효율을 높이는 한편으로 학습자를 사고를 구축하는 존재에서 생성된 결과를 평가하는 존재로 변화시키며, 최근의 실증 연구는 AI 사용 빈도가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 점수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한다(Gerlich, 2025; Lee et al., 2025).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기술 적용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인간이 형성되고 있는가에 관한 교육학적 질문을 제기한다.

이 시대적 변화는 청소년 신앙 형성의 환경에도 깊이 작용한다. 한국 천주교회의 본당 청소년 사목은 이미 주일학교 출석률 감소, 청소년 단체 활동의 위축, 가정에서의 신앙 전수 약화 등 누적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여기에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과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Ministry of Education, 2023)이 청소년의 학교 일상을 더욱 과중하게 만들면서, 청소년이 자기 삶의 의미를 능동적으로 해석할 자리는 학교 안팎에서 함께 좁아지고 있다. 청소년이 일상에서 만나는 환경 자체가 부모와 사목자 이전에 알고리즘과 AI 동반자에 의해 매개되는 시대에, 본당 신앙교육이 청소년 학습자의 인격을 형성하는 고유한 자리를 어떻게 자각하고 또 어떻게 새롭게 정립할 것인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신앙교육학적 과제로 떠오른다.

최근의 학술 담론과 국제기구 보고는 이러한 변화를 인지·체화·관계의 세 차원에서 인간 경험이 좁아지는 현상으로 진단해 왔다(Gerlich, 2025; Lee et al., 2025; World Health Organization, 2025; Office of the U.S. Surgeon General, 2023). 곧 사고의 외주화에 따른 인지의 축소, 매개된 경험이 신체·감각의 직접 경험을 대체하는 체화의 축소, 그리고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위에 AI 동반자 의존이 더해지는 관계의 축소가 그것이며, 그 구체적 내용은 II장에서 검토한다. 본 연구는 특히 인지의 축소, 곧 학습자가 스스로 사고를 구축하기 이전에 AI가 결과물을 제시하는 일상적 환경 안에서 사고의 자기 구성 활동 자체가 약화되는 현상을 핵심 진단으로 삼는다.

이러한 시대적 진단에 대해 가톨릭 교회는 교황청 신앙교리부와 문화교육부 명의로 2025년 1월 28일 ‘인공지능과 인간 지성의 관계에 관한 공지’ 「*Antiqua et Nova*」¹⁾를 발표하였고, 이를 통해 위 진단에 응답하였다. 이 문헌은 인간 존재를 영적·인지적·체화적·관계적 차원의 통합으로 명시하면서(AN, 26), 이 인간학적 내용을 통합적 인간학(integral anthropology)으로 분명히 한다(AN, 16). 곧, 인간을 결합된 두 본성이 아니라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진 하나의 단일체로 이해하고, 인간 지성을 고립된 능력이 아니라 대화와 협력과 연대 안에서 표현되는 관계적 능력으로 규정하는 이 문헌의 진술은 본 연구의 인간학적 준거가 된다(AN, 16-19).

1) 이하 AN으로 표기. 본문 중 함께 표기하는 숫자는 항을 의미함. 예를 들어 (AN, 26)은 「*Antiqua et Nova*」 26항을 뜻함.

본 연구는 「Antiqua et Nova」가 제기한 세 차원의 인간학적 요청이 어디에서 어떻게 청소년의 실제 인격 형성으로 구현되는지에 대하여, 그 자리가 가톨릭 본당 청소년 신앙교육에 있음을 논증한다. 한국 천주교회 안에서 청소년 사목에 관한 선행 연구는 「한국 천주교 청소년 사목 지침서」(Committee for Youth Ministry of the Catholic Bishops' Conference of Korea, 2021)의 의의와 동반(accompaniment) 개념을 사목적으로 분석한 흐름(Yoon, 2022; Jeong, 2023), 가톨릭 교회 문헌에 나타난 청소년상의 변화를 추적한 작업(Lee, 2018), 그리고 청소년을 복음선포의 능동적 주체로 자리매김하는 동반의 교육학으로 청소년 교리교육의 방향 전환을 논증한 연구(Kwak, 2022) 등을 통해 진행되어 왔다. 국내 관련 학계에서도 AI 시대 신앙교육에 관한 논의가 기독교교육의 본질적 목적과 교육과정·교수학습방법의 변화에 대한 이론적 분석(Nam, 2023)과 생성형 AI를 교회교육·종교교사 양성·정서교육·교육목회 현장에 적용한 실천적 연구(Kim, 2024; Nam, 2024; Ok, 2024; Park, 2025)를 중심으로 시작되었으나, 대체로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도구적 차원에 집중되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흐름 위에서, 오늘날 청소년의 인간 경험 축소를 인지·체화·관계의 세 차원에서 진단하고 이를 「Antiqua et Nova」의 통합적 인간학과 결합하여 본당 청소년 신앙교육의 형성적 의미를 규명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본 연구의 목적은 「Antiqua et Nova」(2025)의 가톨릭 인간학에 기초하여, 가톨릭 본당 청소년 신앙교육이 통합적·전례적·관계적 인격 형성의 장으로서 지니는 교육학적 의미를 규명하는 데 있다. 본 연구가 인격 형성을 통합적·전례적·관계적인 것으로 명명하는 까닭은 다음과 같다. 통합적 형성은 학습자가 신앙의 내용을 분절된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데 머무르지 않고 자기 삶의 의미를 능동적으로 해석하는 단일한 인격으로 자라야 한다는 요청을, 전례적 형성은 그러한 인격이 추상적 관념이 아니라 몸과 시간과 감각을 통해 형성된다는 체화적 요청을, 관계적 형성은 그 형성이 고립된 개인 안에서가 아니라 공동체적 친교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요청을 가리킨다. 곧 세 차원은 「Antiqua et Nova」가 제시한 통합적·체화적·관계적 인간 이해를 본당이라는 형성 환경의 언어로 옮긴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 세 가지 연구 문제를 다룬다. 첫째, 오늘날 청소년 형성 환경의 변화는 어떻게 진단되며, 「Antiqua et Nova」의 인간학은 이에 어떻게 응답하는가. 둘째, 그 인간학적 요청은 가톨릭 인격주의 전통 안에서 통합적·전례적·관계적 인격 형성의 준거로 어떻게 심화되는가. 셋째, 본당 청소년 신앙교육의 세 영역, 곧 주일학교·미사와 성사 참여·공동체 활동은 그러한 인격 형성에 어떻게 기여하는가.

본 연구는 이론적 문헌연구로서 교회 문헌의 개념, 가톨릭 인격주의 전통, 일반 교육학 이론을 활용하여 본당 청소년 신앙교육의 세 영역을 분석한다. 가톨릭 인격주의 전통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보이티와의 행위하는 인격(통합 차원), 파르디니의 전례적 인간학(전례 차원), 드 뢰박의 교회론적 인간학(관계 차원)을 핵심 자원으로 삼는다. 이 학자를 선택하는 까닭은,

「Antiqua et Nova」가 제시한 통합적·체화적·관계적 인간 이해의 세 차원이 가톨릭 인격주의 전통 안에서 각각 가장 깊이 있게 심화된 자리가 바로 이들의 작업이기 때문이다. 곧 보이티와는 인격이 행위를 통해 자기를 형성해 가는 통합적 차원을, 파르디니는 인간의 체화성이 전례 안에서 형성되는 전례적 차원을, 드 뤼박은 인간이 공동체적 친교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관계적 차원을 신학적으로 정초한 대표적 사상가이며, 세 사람의 작업은 그 인간 이해를 본당 청소년 신앙교육 논의의 준거로 발전시키는 데 가장 적합한 신학적 토대를 제공한다. 본 연구는 신학적 인간 이해를 분석 자체의 대상으로 삼는 교리교육학·전례 신학·조직신학의 작업과 구별되며, 그러한 인간 이해가 본당 청소년 신앙교육 안에서 어떤 교육학적 체계를 통해 학습자의 인격 형성으로 구현되는지를 분석하는 신앙교육학 연구로 자리매김된다. 또한 본 연구는 「Antiqua et Nova」를 단순한 인용 자료가 아니라 연구 전체를 관통하는 준거 텍스트로 삼는다.

본 연구의 핵심 명제는 다음과 같다. 오늘날의 기술 환경은 청소년을 사고와 감각과 관계의 주체가 아니라 생성된 결과와 매개된 경험을 수용하는 존재로 만들 위험을 지닌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당 청소년 신앙교육은 말씀의 해석, 전례적 참여, 공동체적 친교를 통해 청소년이 자기 삶을 성찰하고 응답하는 능동적 인격으로 형성되도록 돕는 자리가 된다.

II. 인간 경험의 축소와 「Antiqua et Nova」의 인간학

본 연구는 AI가 청소년의 학습 접근성, 정보 탐색, 창의적 표현, 신앙 자료 활용에서 의미 있는 가능성을 열어 준다는 점을 인정한다. 다만 본 연구의 관심은 AI 활용의 효율성이 아니라 AI가 인간 형성 환경에 장기적으로 남기는 인간학적 영향에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장이 검토하는 인지·체화·관계의 축소는 AI 단독의 효과이기보다는, 디지털 문화의 누적된 매개화가 생성형 AI의 동반자적 사용을 통해 개인화·친밀화되는 과정에서 강화된 변화로 이해되어야 한다.

1. 청소년 형성 환경의 변화: 인지·체화·관계의 축소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은 2022년 ChatGPT의 출시 이후 일상적 도구로 정착하였으나, 그 영향은 도구의 차원을 넘어 환경의 차원에서 작동한다. 디지털 기술이 인간의 자기 이해·상호 관계·현실 인식·행위 능력의 조건을 변화시키는 환경적 힘(environmental force)으로 작동하는 온라인프(onlife) 시대의 진단이 보여 주듯(Florida, 2015: 1-3), AI는 사용자가 사고하고 관계 맺고 감각하는 환경 자체를 재편한다. 「Antiqua et Nova」 역시 부모와 교사, 사목자와 주교를 비

릇한 신앙 전수의 임무를 맡은 이들이 이 중대한 주제에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도록 초대함으로써(AN, 5) 이러한 환경적 차원을 명시적으로 인식한다. 이 환경의 변화는 다음의 세 양상으로 진단되며, 세 양상은 인간이 사고하고 감각하며 관계 맺는 차원이 서로 얽혀 있는 만큼 한 차원에서의 축소가 다른 차원으로 전이되는 방식으로 함께 작동한다.

첫째, 인지의 축소이다. 생성형 AI는 학습자의 사고를 구축하는 노동을 생성된 결과를 평가하는 노동으로 전환시키며, 이러한 외주화 경향이 비판적 사고 점수의 약화로 이어진다는 점이 객관적 평가를 통해 보고되었고(Gerlich, 2025), 같은 흐름에서 AI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에 투입되는 인지적 노력과 적용 빈도가 감소하며 인지 노동의 성격이 정보 수집에서 정보 검증으로, 문제 해결에서 AI 응답의 통합으로 변화하고 있음이 자가 보고 설문을 통해 확인되었다(Lee et al., 2025). 이에 대하여 「Antiqua et Nova」는 AI 사용자가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AI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하며 기술 의존성의 심화를 우려한다(AN, 46). 다만 Gerlich(2025)와 Lee et al.(2025)의 연구는 AI 사용이 비판적 사고를 약화시킨다는 점은 보여 주었으나, 그러한 약화가 청소년의 인격 형성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는 다루지 않았다. 본 연구는 두 연구의 결과를 출발점으로 받아들이되, 인지의 축소를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이 자기 삶의 의미를 해석하는 인격 형성의 문제로 재해석한다. 이에 관한 본격적 논의는 IV장 2절에서 이루어진다.

둘째, 체화의 축소이다. 화면을 통한 매개적 경험이 신체·감각의 직접 경험을 대체하는 현상이 그것이다. 체화된 인지 이론이 분석하듯 신체와 환경의 상호작용은 사고를 돕는 필수적 조건이 아니라 사고를 구성하는 본질적 요소이며(Wilson, 2002: 625, 632-635), 인간의 학습은 정보의 전달이 아니라 사회적 실천에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진다(Lave & Wenger, 1991: 29-43). 그런데 오늘날의 일상은 청소년의 신체적 직접 경험의 영역을 점차 좁혀가고 있다. 학령 전환기(초4·중1·고1) 청소년 약 124만 9천여 명 중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 약 22만 1천 명에 이른다는 보고는(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24;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24), 미디어를 통해 시간적·공간적 거리를 가로지르는 상호작용이 개인의 자기 형성 양식을 변화시키는 매개된 경험(mediated experience)(Thompson, 1995: 225-232)이 청소년에게 일상의 구조적 환경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즉시성에 길든 학습자는 기다림의 시간을 견디는 능력을 잃어가며, 알고리즘적 콘텐츠 소비에 길든 학습자는 침묵과 집중된 응시의 시간을 경험할 기회를 잃어간다.

셋째, 관계의 축소이다.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의 위기는 AI의 출현 이전부터 이미 디지털화·개인화·사회적 단절의 복합적 결과로 진행되어 왔으며, AI는 그 위기를 강화하는 새로운 변수로 작용한다. 세계보건기구는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을 전 지구적 공중보건 위협으로 규정하고, 외로움이 매년 약 87만 명의 사망과 연관되며 전 세계 6명 중 1명이 외로움을 경험하는데 그 비율이 청소년과 청년층(13~29세)에서 17~21%로 가장 높다고 보고하였다(World Health

Organization, 2025). 외로움과 고립의 전염병을 공중보건 위기로 규정한 진단도 같은 시기에 제시되었다(Office of the U.S. Surgeon General, 2023). 한국에서도 청소년의 외로움이 스마트폰 중독을 매개로 스트레스로 이어지는 영향관계가 실증된 바 있으며(Kim, 2017), 스마트폰 보급률 증가와 청소년 외로움 지표의 상승이 같은 흐름에서 진행되고 또래와의 대면 상호작용 시간 감소가 이에 동반한다는 종단적 보고도 제출되어 있다(Twenge et al., 2019). 디지털 환경이 사회적 연결의 외형을 제공하면서도 인간적 친밀감의 실체를 감소시킨다는 진단(Turkle, 2011) 위에서, AI 동반자(AI companions)의 출현은 관계의 축소를 가속한다. AI를 밀접하게 사용하는 이들이 챗봇과의 상호작용을 친구·연인·가족과 유사한 정서적 유대로 경험하며 자기개방과 신뢰 형성을 통해 관계를 단계적으로 심화시킨다는 경험연구의 보고는(Skjuve et al., 2021; Xie & Pentina, 2022), 디지털 환경이 이미 약화시킨 또래 관계와 인격적 만남의 자리를 AI 동반자가 더욱 손쉬운 형태로 대체할 가능성을 보여 준다. 그러나 인간 관계가 본질적으로 함축하는 갈등과 기다림, 그리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타자성의 차원은 이러한 관계에서 구조적으로 결여된다. 「Antiqua et Nova」는 갈수록 단절되어 가는 세상에서 어떤 이들이 깊은 인간관계와 정서적 유대감을 찾아 AI에 눈을 돌리고 있으나 인간은 본래 진정한 관계를 경험하도록 만들어졌으며 AI는 그 관계를 모방할 수 있을 뿐이라고 진단하면서(AN, 63; 58), 특히 AI의 의인화(anthropomorphizing)가 어린이와 청소년으로 하여금 인간관계를 챗봇과 하듯 거래 방식으로 이해하도록 부추길 수 있음을 우려한다(AN, 60).

2. 「Antiqua et Nova」의 인간학적 응답

세 차원의 인간 경험 축소에 대해 가톨릭 교회는 「Antiqua et Nova」를 통해 신학적·인간학적 진술의 형식으로 응답한다. 「Antiqua et Nova」는 그러한 인간학적 입장을 통합적 인간학(integral anthropology)으로 명시하며(AN, 16; 26), 인간을 본질적으로 육화된 존재로 이해한다. 인간 안의 정신과 물질은 결합된 두 본성이 아니라 그 결합으로 하나의 단일한 본성이 형성되는 것이며, 인간의 전 존재는 동시적으로 물질적이며 영적이다(AN, 16). 통합적 이해 안에서 인간의 지적 능력은 인간이 영혼과 육체로 단일체를 이룬다는 점을 인식하는 인간학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자리매김되며, 「Antiqua et Nova」는 이를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기쁨과 희망」(Gaudium et Spes) 14항을 인용함으로써 분명히 한다(AN, 17).

이러한 통합적 인간 이해는 인지의 축소에 대한 응답의 토대가 된다. 「Antiqua et Nova」는 교육의 본질을 사실과 지적 기술의 단순한 전달이 아니라 지적·문화적·영적 차원을 포함하는 인격의 통합적 형성으로 명시하며, AI가 인격의 통합적 형성을 대체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AN, 77-79). 곧 인간 지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사실의 습득이나 특정 과업의 수행 능력으로 환원될 수 없으며, 삶의 궁극적 질문들에 대한 인격적 개방성과 진리와 선에 대한 지향을 본질

적으로 포함한다(AN, 29). 이는 단순히 AI 사용에 관한 진술이 아니라 인간 지성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관한 인간학적 명제이며, 그 바탕에는 학습자가 사고의 주체로 형성되어야 한다는 교육의 근본 원칙이 자리한다.

체화의 차원에서 「Antiqua et Nova」는 인간 지성이 신체적·심리적 성장 과정을 통틀어 유기적으로 발전하며 감각적 자극·감정적 반응·사회적 상호작용과 각 상황의 고유한 맥락을 포함하는 체화된 경험에 의해 형성됨을 강조하고(AN, 31), 질병에서, 화해의 수용에서, 단순한 일물에서도 인간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음을 진술함으로써(AN, 33) AI가 결코 대체할 수 없는 인간 학습의 체화적 차원을 분명히 한다. 이 진술은 인간이 영혼과 육체의 인격적 단일성을 이루는 본질적으로 육화된 존재라는 16항의 존재론적 명제를 토대로 전제하면서(AN, 16), 그 토대 위에서 인간 지성이 어떻게 형성되는가의 차원을 밝힌 것이다.

관계성의 차원에서 「Antiqua et Nova」는 인간 지성을 고립된 능력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발휘되는 능력으로 규정한다. 우리가 다른 이들과 함께, 다른 이들을 통해 배우며, 인간 지성은 대화와 협력과 연대 안에서 가장 충만하게 표현된다는 진술이 그것이다(AN, 18). 같은 문헌은 관계성의 궁극적 근거를 창조와 구원 안에서 당신 사랑을 드러내시는 삼위일체 하느님의 영원한 자기 증여에 두며, 인간의 관계성을 단순한 사회학적 사실이 아니라 신학적 차원의 명제로 자리매김한다(AN, 19). 나아가 「Antiqua et Nova」는 인간 존재의 차원을 영적이고 인지적이며 체화적이고 관계적인 것으로 명시함으로써 통합적 이해가 가톨릭 인간학의 입장임을 분명히 하고(AN, 26), 네 차원의 조화로운 상호작용을 통해 인간이 통합적 안녕(integral well-being)을 추구한다고 진술한다(AN, 27). 본 연구는 이러한 진술들, 곧 통합적 인간학·육화된 단일체로서의 인간·대화와 협력 안에서 표현되는 관계적 차원을 「Antiqua et Nova」가 제시한 가톨릭 인간학의 핵심 축으로 받아들이며, 다음 장에서는 이 차원들을 가톨릭 인격주의 전통 안에서 신앙교육학적으로 심화한다.

III. 통합적·전례적·관계적 인격 형성의 인간학적 토대

전술한 바와 같이 「Antiqua et Nova」는 인간을 통합적·체화적·관계적 차원의 단일체로 이해한다. 본 장은 「Antiqua et Nova」의 인간학을 출발점으로 삼되, 그 인간학적 진술을 본당 청소년 신앙교육 안에서 작동하는 신앙교육학적 논의의 준거로 발전시키는 작업을 수행한다. 여기서 본 연구의 전례 차원은 「Antiqua et Nova」의 체화적 차원을 환원하거나 대체하는 개념이 아니라, 체화성이 본당이라는 구체적 신앙교육 환경 안에서 교육적으로 조직되는 대표적 양식을 가리킨다. 곧 본 연구가 제시하는 전례적 인격 형성은 체화적 인간학의 폐기나 축소가 아니라 그 신앙교육학적 구체화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왜 그 자리가 다른 곳이 아니라 본당 청소년 신앙교육이어야 하는가? 본당은 가톨릭 교회에서 신앙이 가장 가시적이고 일상적으로 구현되는 형성의 현장이며, 청소년기는 어떤 환경 안에서 어떤 관계와 경험을 만나느냐가 한 인격의 평생을 좌우할 만큼 결정적인 발달 시기이다. 따라서 「Antiqua et Nova」의 인간학적 요청이 추상적 명제로 머무르지 않고 청소년의 실제 인격 형성으로 구현되려면, 그 자리는 가톨릭 교회의 일상적 형성의 자리인 본당이 되어야 하며, 그 대상은 인격 형성의 결정적 시기에 놓인 청소년이 되어야 한다. 다만 「Antiqua et Nova」는 공지(note)의 형식으로 작성된 압축적 문헌이므로 각 차원의 신학적·교육학적 심화는 별도의 작업을 요구하며, 본 장은 이러한 심화 작업을 가톨릭 인격주의 전통 안에서 수행한다.

1. 가톨릭 인격주의 전통 안에서의 심화

1) 통합 차원: 통합적 인간 발전 전통과 보이티와의 인격주의

「Antiqua et Nova」가 명명한 통합적 인간학은 가톨릭 사회교리 전통의 통합적 인간 발전 개념과 연속선 위에 있다. 이 개념은 「민족들의 발전」(Populorum Progressio) 14항의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전, 그리고 인간 전체의 발전’이라는 명제에서 출발하여, 「진리 안의 사랑」(Caritas in Veritate) 11항의 ‘진정한 인간 발전은 인격의 모든 차원과 관련된다’는 명제로 이어졌다. 이 흐름은 「찬미받으소서」(Laudato Si')에서 통합 생태론(integral ecology)의 관점을 통해 한 단계 더 발전하는데, 특히 105항에서 파르디니의 「Das Ende der Neuzeit」를 직접 인용함으로써 통합 개념이 20세기 가톨릭 사상사 안에서 일관된 흐름임을 드러낸다. 「모든 형제들」(Fratelli Tutti) 8항이 보편적 형제애의 차원에서 통합적 발전을 다시 정식화한 흐름도 같은 연속선 위에 있다. 전통의 핵심은 인간을 어느 한 차원으로 환원하지 않고 영적·지적·정서적·체화적·관계적 차원의 통합적 발전을 추구한다는 데 있으며, 본 연구가 채택하는 ‘통합적 인간학’이라는 용어는 따라서 「Antiqua et Nova」에서 처음 만난 표현이 아니라 가톨릭 사회교리 전통의 깊은 흐름에서 이어받은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사회교리 전통이 인간을 어느 한 차원으로 환원하지 않는 통합적 발전의 대상으로 자리매김했다면, 그러한 통합이 한 인격 안에서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인간학적으로 해명한 것이 카롤 보이티와(Karol Wojtyła, 1920~2005,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인격주의이다. 본 연구가 통합 차원의 신학적 토대로 보이티와를 택하는 까닭은, 그의 인격주의가 통합을 여러 차원의 단순한 종합이 아니라 인격이 행위를 통해 자기를 형성해 가는 동적 과정으로 규명함으로써, 본 연구가 통합 차원에서 논증하려는 능동적 인격 형성의 명제에 가장 정합적인 신학적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보이티와의 인격주의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인간학에 깊이 관여한 신학적 사유로서 가톨릭 인격주의 전통의 한 정점으로 평가되며(Buttiglione, 1997), 그는 「The Acting Person」에서 인격이 행위를 통해 자기 자신을 형성하는 과정을 자기 결정(self-determination)과

자기 충족(self-fulfillment)으로 명명하였다(Wojtyła, 1979: 105-149). 그의 작업은 칸트적 의무 윤리가 인격을 추상적 의지 주체로 환원하는 경향과 셸러의 가치 현상학이 인격의 동적 자기 형성 차원을 충분히 포착하지 못하는 한계를 동시에 종합하려는 신학적·철학적 작업으로 자리 매김되며, 인격은 주어진 본성이 아니라 형성되어 가는 자기 자신이고 그 형성은 영혼·육체·의식·행위가 분리되지 않는 단일한 동적 구조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분석이 그 핵심에 있다.

보이티와의 인격주의가 본 연구에 갖는 함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본 연구의 준거에서 ‘통합 차원’이 단순히 여러 차원의 종합이 아니라 행위하는 인격이 자기를 형성해 가는 동적 통합으로 자리매김된다. 둘째, IV장 2절(주일학교)에서 분석할 핵심 명제, 곧 학습자가 신앙 내용을 수동적으로 전달받는 대상이 아니라 자기 삶의 의미를 신앙의 언어로 능동적으로 해석하는 주체로 형성된다는 명제가 보이티와의 ‘행위하는 인격’ 개념에 신학적으로 정초된다. 본 연구는 보이티와의 인격주의를 통합 차원의 신학적 토대로 받아들이며, 청소년 학습자의 통합적 인격 형성이 추상적 명제가 아니라 행위를 통한 자기 결정의 과정임을 분석의 기본 전제로 삼는다.

2) 전례 차원: 가르디니의 전례적 인간학과 「전례 현장」

가톨릭 전통에서 인간의 체화성이 가장 명시적이고 구체적으로 형성되는 자리는 전례이며, 이를 신학적으로 자리매김한 흐름은 20세기 전례운동에서 시작하여 제2차 바티칸 공의회로 결실을 맺었다. 그 출발점에 로마노 가르디니(Romano Guardini, 1885~1968)가 있다. 가르디니가 「전례의 정신」(Vom Geist der Liturgie)에서 제시한 핵심 명제 세 가지는 본 연구의 전례 차원의 신학적 토대를 이룬다(Guardini, 1998). 첫째, 4장 ‘전례의 상징’(The Symbolism of the Liturgy)에서 그는 몸을 영혼의 자연스러운 상징으로, 자발적인 신체적 움직임을 영적 사건의 표현으로 분석함으로써 전례에서 사용되는 무릎 꿇기·십자성호·향·초·봉헌 등 모든 신체적 움직임과 물질적 사물이 단순한 의례가 아니라 영적 표현의 본질적 매개라 하였다. 이는 「Antiqua et Nova」의 체화적 차원을 본 연구가 전례적 차원으로 발전시키는 신학적 정당성의 토대이다. 둘째, 5장 ‘전례의 유희성’(The Playfulness of the Liturgy)에서 가르디니는 전례를 목적이 없으면서도 의미로 충만한 사건으로 분석함으로써, 전례가 학습자에게 목적 없는 진지함의 경험을 제공하는 동시에 도덕적·교육적 효용의 수단으로 환원되는 도구주의(instrumentalism)의 위험에서 벗어난 자리임을 분명히 하였다. 셋째, 6장 ‘전례의 진지함’(The Seriousness of the Liturgy)에서 그는 전례의 아름다움이 진리의 광채(splendor veritatis)임을 강조하면서 전례가 인간적 감상의 대상으로 환원되는 미학주의(aestheticism)를 경계하였다. 5장과 6장의 종합 안에서 전례는 도구주의와 미학주의 양쪽을 동시에 비껴선 자리로 자리매김된다.

가르디니의 전례 신학은 20세기 전례운동의 핵심 자원으로 작용하면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의 전례 개혁에 깊은 영향을 끼쳤고, 그 신학적 결실이 「전례 현장」(Sacrosanctum Concilium)

으로 명문화되었다. 「전례 현장」 10항은 전례를 “교회 활동이 지향하는 정점이며 …… 교회의 모든 힘이 흘러나오는 원천”으로 규정함으로써, 전례가 인간의 신체·감각·시간·공동체가 통합되는 형성적 사건임을 공의회 차원에서 확립하였다. 같은 현장 14항과 21항은 신자들의 능동적 참여를 전례 개혁의 핵심 원리로 명시함으로써, 전례적 형성이 수동적 관람이 아니라 능동적 참여의 사건임을 분명히 하였다. 파르디니의 전례적 인간학은 공의회 이후에도 라칭거(Ratzinger, 2000)의 「The Spirit of the Liturgy」 현장과 프란치스코 교황의 「찬미받으소서」 105항 인용에서 보듯이(Laudato Si'), 가톨릭 교회 안에서 살아 있는 자원으로 계승되어 왔다.

파르디니의 전례적 인간학은 그의 또 다른 작업인 「코모 호수에서 보낸 편지들」(Briefe vom Comer See)의 기술 비판과 결합될 때 그 시대적 의미가 더욱 분명해진다. 두 번째 편지(Guardini, 1994: 16-19)에서 분석된 살아있는 불꽃(촛불)에서 전기 조명으로의 전환은 단순한 기술 변화가 아니라 살아있는 공간·살아있는 몸의 참여·살아있는 시간이 함께 사라지는 인간학적 변화로 자리매김되며, 여섯 번째 편지의 지배(Mastery) 분석에서는 기술이 자기 목적이 되어 인간을 도구로 환원할 위험을 경계함으로써(Guardini, 1994: 32-34) 「전례의 정신」 5장에서 정식화한 도구주의(instrumentalism) 비판이 기술 시대 인간 형성 환경에 대한 비판으로 확장된다. 나아가 아홉 번째 편지에서 그는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기술의 양적 감축이 아니라 더 인간적인 기술의 추구임을 분석함으로써(Guardini, 1994: 48), 기술을 무조건 거부하지도 수용하지도 않으면서 인간 형성의 자리를 신학적으로 다시 묻는 가톨릭 사상의 한 원형을 정식화하였다.

파르디니의 1920년대 중반 진단은 100년 전의 진단이면서도 본 연구의 II장에서 분석한 AI 시대의 매개된 경험에 대한 진단과 구조적으로 같은 통찰을 담고 있다. 곧 본 연구가 AI 시대의 인간 경험 축소를 인지·체화·관계 세 차원에서 진단하는 작업은 새로운 발명이 아니라 가톨릭 사상의 깊은 흐름 안에서 갱신되는 작업이다. 본 연구가 채택하는 전례 차원은 따라서 단순한 의례적 참여의 분석이 아니라, 파르디니의 두 문헌이 함께 가리키는 신학적 통찰, 곧 기술 시대의 매개된 경험에 대해 전례적 체화가 인간을 다시 형성하는 통찰이 된다. 따라서 「전례 현장」의 능동적 전례 참여 명제(Sacrosanctum Concilium: 14; 21)는 청소년 미사 사목에서 학습자가 자기 몸과 시간을 통해 신앙을 살아내는 전례적 형성의 자리로 청소년 미사를 재설계할 신학적 토대로 작용한다.

3) 관계 차원: 드 뤼박의 교회론적 인간학과 communio personarum

「Antiqua et Nova」의 관계적 인간 이해는 가톨릭 신학에서 인격들의 친교(communio personarum) 개념과 연결되며, 그 가장 깊은 신학적 자원은 앙리 드 뤼박(Henri de Lubac, 1896~1991)의 교회론적 인간학이다. 드 뤼박은 「가톨릭시즘」(Catholicisme, 1938)의 첫 문장에서 그리스도의 신비체의 초자연적 일치가 그 이전의 자연적 일치, 곧 인류 전체의 일치를 전제

한다고 선언한다(de Lubac, 1988: 25). 곧 인간은 본성상 이미 하나의 공동체적 존재이며, 신앙의 공동체성은 이 자연적 단일성 위에 세워진다는 명제이다. 이러한 분석은, 20세기 전반 교부와 전례·성경의 원천으로 돌아가 신앙을 재성찰하고자 한 신학 쇄신 운동인 누벨 테올로지(nouvelle théologie)의 신학적 응답으로, 가톨릭 신앙의 공동체적·교회적 차원이 단순한 사회적 친밀감이 아니라 인간 본성 자체에 정초된 신학적 차원임을 보여 준다.

드 뤼박은 같은 1장에서 한 가지를 더 분석한다. 인간은 본래 서로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로 이어진 존재이며, 바로 그 때문에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자기가 누구인지를 발견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 명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두 고전을 끌어들인다. 첫째, 14세기 신비가 류이스브룩(Jan van Ruysbroeck, 1293~1381)의 「영원한 구원의 거울」(The Mirror of Eternal Salvation)은 하느님의 모상이 각 사람 안에 온전히 머무르면서도 동시에 모든 사람 안에서 하나로 이어진다고 진술한다(Ruysbroeck, as cited in de Lubac, 1988: 30). 둘째,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Clement of Alexandria, 150~215)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된 이들이 서로 분리된 개인으로 머무르지 않고 한 몸을 이룬다고 진술한다(Clement of Alexandria, as cited in de Lubac, 1988: 46). 이 두 명제는 본당 공동체가 단순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신앙의 자리임을 보여 주며, 청소년이 그러한 본당 공동체 안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발견한다는 본 연구의 관계 차원 명제에 가장 깊은 신학적 토대를 제공한다.

드 뤼박은 「가톨릭시즘」 11장 ‘인격과 사회’(Person and Society)에서 인격과 공동체의 관계를 정리한다. 내용은 이렇다.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 될 때, 각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자기 자신을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자유롭고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된다(de Lubac, 1988: 330). 곧 참된 공동체는 사람들을 서로에게 녹여 하나의 덩어리로 만드는 곳이 아니라, 서로를 통해 각자가 자기 자신으로 완성되도록 이끄는 자리이다. 이 통찰은 인격들의 친교(communio personarum) 개념의 신학적 원형이며, 후에 보이티와는 「The Family as a Community of Persons」(Wojtyła, 1974/1993)에서 가족과 신앙공동체를 분석하며 이 개념을 발전시켰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기쁨과 희망」(Gaudium et Spes) 24항은 인간은 자기 자신을 진실하게 내어 줌으로써만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발견할 수 있다는 명제로 이를 확정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communio personarum 개념을 「기쁨과 희망」→ 보이티와 → 드 뤼박의 순서로 분석한다. 곧 공의회의 공식 명제에서 출발해, 보이티와의 후속 발전을 거쳐, 그 신학적 원천인 드 뤼박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순서이다. 다만 글이 쓰여진 실제 순서는 그 반대이다. 드 뤼박의 1938년 작업이 가장 먼저 있었고, 그 통찰이 「기쁨과 희망」 24항의 인간학적 명제로 이어졌으며, 보이티와의 후속 작업이 그 위에서 발전한 것이다. 보이티와의 인격주의를 분석한 후속 연구는 communio personarum이 단순한 사회적 친밀감이 아니라 사람이 다른 사람과 만나면서 자기 자신을 자유롭게 선택해 가는 사건임을 보여 줌으로써

(Buttiglione, 1997: 144-231), 이 신학적 흐름이 가톨릭 인격주의 전통의 핵심임을 확인해 준다.

2. 본 연구의 논의 준거

앞 절(III장 1절)에서 수행한 보이티와 · 파르디니 · 드 튀박의 인격주의적 심화 작업을 종합하면, 본 연구의 논의 준거는 <표 1>과 같이 구성된다. 인간은 통합적 · 전례적 · 관계적 인격으로 형성되는 존재이다. 통합 차원은 영적이고 지적이며 정서적인 차원의 조화로운 형성을, 전례 차원은 체화성과 시간성과 감각이 전례적 참여 안에서 형성됨을, 관계 차원은 정체성이 공동체적이고 교회적인 친교 안에서 형성됨을 의미한다. 세 차원은 분리되지 않으며 서로를 함축한다. 통합적 형성은 그 안에 이미 체화적 차원과 관계적 차원을 내포하며, 전례적 형성은 통합적 인격의 발달을 전제하면서 동시에 공동체적 친교 안에서만 가능하고, 관계적 형성은 추상적 사회성이 아니라 전례적 친교를 통해 가장 깊은 차원에서 실현된다. 세 차원의 자리를 동시에 그리고 유기적으로 제공하는 형성 환경이 가톨릭 교회 안에서는 본당이며, 그러한 형성이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발달 시기가 청소년기이다.

<표 1>이 보여 주는 논의 준거는 「Antiqua et Nova」의 인간학 → 가톨릭 인격주의 신학 → 본당 영역 → 교육학 이론 → AI 시대 응답으로 이어지는 다섯 단계로 체계화된다. 본 논의 준거의 핵심은 통합 · 전례 · 관계 세 차원이 모두 학습자의 능동적 인격 형성을 일관되게 향한다는 데에 있다. 통합 차원에서 학습자는 신앙 내용을 수동적 대상이 아닌 자기 삶의 의미를 신앙의 언어로 능동적으로 해석하는 주체로 형성된다. 전례 차원에서 학습자는 즉시적 자극을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대상이 아니라 전례적 참여를 통해 자기 자신을 능동적으로 성찰하는 주체로 형성된다. 관계 차원에서 학습자는 알고리즘이 매개하는 거래적 관계의 수동적 수신자가 아니라 환대적 공동체 안에서 인격적 친교를 능동적으로 살아내는 주체로 형성된다.

이러한 능동성의 세 갈래는 인간 동기 발달에 관한 일반 심리학 이론과도 구조적으로 상응한다. 자기결정성 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은 인간의 기본 심리 욕구를 자율성(autonomy), 유능감(competence), 관계성(relatedness)으로 규정하고, 이 세 욕구의 충족이 학습자의 자율적 동기와 능동적 자기 형성에 본질적임을 다수의 실증 연구를 통해 논증해 왔다(Ryan & Deci, 2020). 그러나 이러한 구조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논의 준거는 신앙 형성을 심리학적 동기 구조로 환원하지 않는다. 통합 · 전례 · 관계의 세 차원은 청소년이 본당이라는 구체적인 신앙 공동체 안에서 누구와 관계 맺고, 무엇을 향해 성장하며, 어떤 방식으로 자기 삶을 해석하는가를 묻는 신앙교육학적 틀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의 이론 배치는 다음과 같이 위계화된다. 신학적 중심축은 「Antiqua et Nova」의 통합적 인간학과 가톨릭 인격주의 전통이다. 일반 교육학 이론과 자기결정성 이론은 이 신학적 중심축이 본당이라는 형성 환경 안에서 어떻게 구현되는가를 설명하는 보조적 해석틀로 사용된다.

<표 1> 본 연구의 논의 준거와 본당 청소년 신앙교육의 세 영역

<Table 1> The Frame of Reference and Three Domains of Parish Faith Education for Adolescents

차원	「Antiqua et Nova」 출처 항목	가톨릭 인격주의 신학적 토대	본당 영역 (IV장 적용)	적용 교육학 이론	AI 시대 응답 방향
통합 (Integral)	16항, 26항, 27항, 29항, 77-79항	통합적 인간 발전 전통 + 보이티와의 행위하는 인격과 자기 결정	주일학교 (말씀의 교육)	변혁적 학습 (Mezirow), 경험학습(Kolb), 공유 그리스도교 실천(Groome)	인지적 축소 → 의미를 짓는 해석적 주체로의 형성
전례 (Liturgical)	31항, 33항 + 60항	파르디니 「Vom Geist der Liturgie」(1918) + 「전례 현장」 10항 · 14항 · 21항	미사 · 성사 (전례적 형성)	상황학습(Lave & Wenger), 잠재적 교육과정(Jackson), 체화된 인지(Wilson)	체화적 축소 → 직접적 감각 · 기다림 · 메타 인지적 자기 성찰 주체로의 형성
관계 (Relational)	18항, 19항, 26항, 58항, 60항, 63항	드 뤼박 「Catholicism」 Chap. I · XI + communio personarum	공동체 활동 (청소년 단체 · 봉사 · 캠프 등)	실천 공동체 (Wenger), 발달생태학 (Bronfenbrenner), 인격 강점(Park & Peterson)	관계적 축소 → 환대적 친교 안에서 자기 은사를 발견하는 능동적 주체로의 형성

IV. 본당 청소년 신앙교육의 교육학적 분석

1. 본당 청소년 신앙교육의 구조와 한국적 현실

본당 청소년 신앙교육은 학교 교육이나 가정 교육과 구별되는 고유한 형성 환경이다. 형식 · 비형식 · 무형식 교육의 구분에 따르면, 본당 신앙교육은 비형식 교육(non-formal education)의 영역에 속한다(Coombs & Ahmed, 1974). 학교와 같은 제도화된 학력 부여 체계가 아니면서도, 가정과 같은 무형식적 일상 환경과도 구별되는, 체계적이지만 유연한 교육적 활동의 영역이다. 본당 청소년 신앙교육의 핵심 구성 요소는 세 영역, 곧 주일학교(말씀의 교육), 미사 · 성사 참여(전례적 형성), 공동체 활동(봉사 · 캠프 · 포대 모임)으로 정리된다. 세 영역은 각각 분리된 활동이 아니라 하나의 생태계(ecosystem)를 이룬다. 인간 발달이 개인을 둘러싼 미시체계

(microsystem) · 중간체계(mesosystem) · 외체계(exosystem) · 거시체계(macrosystem)의 다층적 환경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발달생태학의 관점에서 보면(Bronfenbrenner, 1979), 본당은 청소년의 미시체계이면서 동시에 학교 · 가정 등 다른 미시체계와 연결되는 중간체계의 일부로 작용하며, 청소년의 신앙 형성은 세 영역의 유기적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적 가능성은 한국 본당 청소년 신앙교육의 실제 현실 안에서 여러 도전과 마주하고 있다. 「한국 천주교회 통계 2025」에 따르면, 2025년 한국교회 신자 수는 사상 처음으로 6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주일미사 평균 참여율은 전체 신자 대비 15.5% 수준이었다. 견진성사는 전년 대비 11.7% 증가하여 2019년 대비 80.5% 수준으로 회복되었고, 부활 판공성사 참여율은 대상자 대비 25.1%, 성탄 판공성사는 25.0%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회복 흐름을 일정 부분 이어가고 있다. 영세자 수도 6만 4,073명으로 전년 대비 9.8% 증가하였다. 다만 신자 증가율은 전년 0.5%에서 0.2%로 둔화되었으며, 65세 이상 신자 비율이 28.9%에 이르고 20세 미만 신자 비율은 6.2%에 머무르는 등 고령화 경향과 청년 · 청소년 세대의 약화는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Catholic Bishops' Conference of Korea, 2026). 이러한 흐름은 저출생 · 고령화의 심화와 청소년 사목의 총체적 쇠신 필요성(Catholic Pastoral Institute of Korea, 2024), 그리고 한국 사회 탈종교화 추세(Gallup Korea, 2021) 위에서 해석해야 한다.

교회 내부의 통계적 흐름과 함께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차원은 한국 청소년이 일상을 살아가는 공교육 환경의 구조적 변화이다.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와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확정안(Ministry of Education, 2023)을 통해 한국 고등학교의 평가 · 전형 구조는 5등급 절대평가 · 상대평가 병기와 통합형 수능을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체제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고등학생의 학교생활 전체가 입시 평가 자료의 누적 과정으로 재편되는 흐름을 가속화한다. 5등급 상대평가의 도입에 따른 변별력 약화에 대응하여 주요 대학들이 학생부 정성평가를 학생부종합전형은 물론 학생부교과전형과 정시 수능전형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Hwang & Cho, 2024; Cho & Hwang, 2025). 이러한 구조 안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자기 자신을 입시 자료로 끊임없이 대상화하고 관리해야 하는 부담은 학업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에 누적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학술적으로 일관되게 보고되어 왔다(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11; Pascoe et al., 2020). 곧, 청소년이 자기 삶의 의미를 해석하고 자기 몸과 시간을 직접 경험하며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타자와 함께 살아가는 인격적 형성의 자리는 공교육 안에서 점점 더 좁아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본당 청소년 신앙교육은 비형식 교육(Coombs & Ahmed, 1974)의 영역에서 통합적 · 전례적 · 관계적 인격 형성을 보완하는 자리로 요청된다.

다른 한편, 미사 · 성사 활동 전반의 점진적 회복과 주일학교 학생 감소세가 초등부보다 중 · 고등부에서 그 폭이 작다는 통계는 본당이 여전히 청소년의 형성적 자리로 작동할 가능성을 시사하며(Catholic Bishops' Conference of Korea, 2026), 청소년기를 사회적 환경에 대한 민감기로

분석하는 발달신경과학의 통찰(Blakemore & Mills, 2014)에 비추어 보면 본당이 청소년에게 어떤 환경을 제공하느냐는 인격 형성의 결정적 변수가 된다. 다만 본 연구가 제시하는 분석은 본당 청소년 신앙교육이 그 자체로 인격을 형성한다는 주장이 아니다. 본당이 자신의 고유한 형성 환경을 교육학적으로 자각하고 그에 걸맞은 정교함을 갖출 때 비로소 그러한 형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전제이며, 이어지는 연구 내용은 주일학교·미사와 성사 참여·공동체 활동의 세 영역에서 그러한 형성이 가능한 교육학적 근거를 차례로 개진한다.

2. 통합 차원의 형성: 주일학교와 말씀의 교육

본당 주일학교는 학습자의 통합적 형성의 주요 자리이다. 단순한 교리 지식 전달이 아니라, 학습자가 신앙의 의미를 자기 삶의 맥락 안에서 해석하고 재구성하는 활동의 자리이다. 변혁적 학습 이론은 학습이 학습자의 의미 관점(meaning perspectives)을 바꾸는 전인적 변화임을 보임으로써(Mezirow, 1991) 신앙 형성이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님을 교육학적으로 뒷받침한다. 경험학습 이론은 학습이 구체적 경험 → 반성적 관찰 → 추상적 개념화 → 능동적 실험의 순환으로 이루어진다고 분석함으로써(Kolb, 1984: 40-42) 본당 주일학교가 말씀 듣기 → 자기 삶에 비추어 봄 → 의미 구성 → 실천의 해석적 순환으로 구조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두 이론은 성인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 경험을 전제한 모델이며, 청소년의 메타인지적 자기 성찰 능력은 청소년기 후반에 본격적으로 발달한다(Weil et al., 2013). 따라서 한국 본당의 청소년이 신앙 안에서 자기 삶의 의미를 해석하는 주체로 자라려면 학습자의 발달적 조건, 교리교사의 동반, 본당 공동체의 환대적 분위기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

다만 통합적 형성이 실제로 일어나려면 본당 주일학교가 교리문답식 정보 전달에 머무르지 않고, 말씀과 학습자의 삶을 연결하는 해석적 활동으로 구조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구조의 신앙교육학적 토대는 그룹(T. H. Groome)이 제시한 공유 그리스도교 실천(Shared Christian Praxis) 접근에서 찾을 수 있다(Groome, 1980: 184-234). 그룹은 신앙교육을 학습자의 현재 삶에서 출발하여, 그 삶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이야기와 비전을 만나며, 다시 학습자의 삶으로 돌아오는 다섯 단계의 해석적 운동으로 제시하였다(Groome, 1980: 207-223). 그룹의 이 연구가 분명히 한 것은, 신앙교육의 본질이 정보의 전달이 아니라 학습자의 삶과 신앙 전통이 만나는 해석적 사건에 있다는 점이다.

AI가 교리 정보의 검색과 정리를 점점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대에, 본당 주일학교의 고유성은 정보 전달이 아니라 청소년이 신앙의 의미를 자기 삶의 맥락 안에서 해석하도록 돕는 데 있다. 이러한 고유성은 「Antiqua et Nova」가 명시한 인간 지성의 차원과 결합될 때 더욱 깊어진다. 곧 인간 지성은 단순한 사실의 습득이나 특정 과업의 수행 능력으로 환원될 수 없으며, 삶의 궁극적 질문에 대한 인격적 열림과 진리와 선을 향한 지향을 본질적으로 포함한다.

다는 명제이다(AN, 29). 학습자가 신앙의 의미를 깨닫는 일은 단순한 인지 활동이 아니라 삶의 궁극적 질문에 대한 열림이며 진리와 선을 향한 발걸음이다.

이러한 분석은 한국 본당 주일학교의 사목적 현실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국 본당 주일학교의 일상은 자주 청소년이 학업 일정에 쫓겨 짧게 머무는 자리, 그리고 교리 진도를 일정 시간 안에 채우려는 자리로 좁아질 위험을 안고 있으며, 이때 청소년은 신앙 공동체의 학습자라기보다 교리 진도의 대상으로 자리매김된다. 한국 본당 주일학교가 직면한 어려움이 교리 내용의 부족 차원이 아니라, 학업 부담과 진로 불안, 학교·가정·디지털 일상에서 누적되는 정서적 피로 안에서 청소년이 신앙의 언어로 자신의 삶을 해석할 자리가 충분히 마련되지 못하는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한 방향에서 한국 본당 주일학교의 과제는 교리 내용을 더 많이 전달하는 데 있기보다, 청소년이 자신의 학업 부담, 진로 불안, 관계 경험, 디지털 일상 안에서 신앙의 의미를 해석하도록 돕는 방식으로 교육과정이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는 방향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다. 그러한 재구성은 동시에 교리 교사 양성, 교과 구성, 사목적 자각이 함께 작동할 때 비로소 가능한 변화일 것이다.

3. 전례 차원의 형성: 미사와 성사 참여, 잠재적 교육과정

미사와 성사에의 정기적 참여는 본당 청소년 신앙교육의 전례적 형성의 자리이다. 형성은 명시적 교수의 차원이 아니라 참여 자체를 통한 형성이라는 점에서 교육학적으로 분석할 가치가 크다. 상황학습 이론은 이를 정당한 주변적 참여(*legitimate peripheral participation*)의 개념으로 분석한다(Lave & Wenger, 1991: 29-43). 학습자는 처음에는 공동체의 주변에서 참여하며 점차 공동체의 핵심 실천에 통합되어 간다. 청소년이 본당 미사에 참여할 때, 학습자는 처음에는 부모를 따라, 또래와 함께 신앙 공동체의 주변에서 참여하지만, 점차 전례의 의미와 리듬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간다. 이 과정에서 학습은 지식의 습득이 아니라 정체성의 형성으로 이루어진다. 다만 상황학습 이론은 본래 일터의 도제 학습을 분석한 모델로서 학습자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하는데, 청소년에게 본당 청소년 신앙교육의 정당한 주변적 참여가 형성적 사건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이 미사 안에서 자기 자리를 발견하도록 돕는 사목적 매개가 함께 작동해야 하며, 그러한 매개가 결여되면 정체성의 형성은 좁아질 수 있다.

미사와 성사 참여의 형성적 차원은 잠재적 교육과정(*hidden curriculum*) 이론을 통해 더 깊이 분석할 수 있다(Jackson, 1968: 33-37). 학생이 학교에서 배우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교사가 명시적으로 가르치는 교과 내용이 아니라, 교실의 군중성·평가·권력 구조와 같은 환경적 조건에 매일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형성되는 비명시적 학습이라는 통찰이 그 토대이다. 같은 관점에서 미사와 성사 참여는 본당 청소년 신앙교육의 잠재적 교육과정의 핵심 자리이다. 명시적으로 가르쳐지지 않더라도, 학습자는 성당의 차분한 공간, 전례의 규칙을 따르는 시간, 성경 말씀

을 듣는 시간, 성체를 함께 나누는 공동체성, 고해성사를 통한 자기 성찰을 거치면서 인간적 성장의 가능성을 마련한다. AI 시대의 학습자가 즉시성·매개된 경험·신체성의 약화에 노출되어 있다면, 미사와 성사 참여는 정확히 그 반대 방향의 형성, 곧 전례적 시간의 기다림, 직접적 감각의 체화성, 침묵과 응시의 집중을 제공한다. 파르디니가 분석한 것처럼 전례에서 몸은 영혼의 자연스러운 상징으로 작동하며, 전례 자체가 목적 없이도 의미로 충만한 사건으로 학습자에게 다가오는 만큼(Guardini, 1998), 전례는 학습자를 효율의 시간에서 은총의 시간으로, 생산의 신체에서 찬미의 신체로 형성한다.

따라서 한국 본당의 청소년 미사는 단조로운 형식의 미사가 아니라, 청소년이 자기 몸과 감각과 시간을 통해 신앙을 배워 갈 수 있도록 재설계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청소년의 발달 단계에 맞춘 사제의 강론, 청소년이 또래와 함께 전례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준비, 청소년의 시선에 맞춘 전례 음악과 악기 등 사목적 환경의 구축이 그 과제이다. 이러한 과제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전례 헌장」(Sacrosanctum Concilium) 14항과 21항이 명시한 능동적 참여(actuosa participatio) 원칙에 그 신학적 근거를 둔다.

전례 차원의 형성은 또 한 가지 깊이를 지닌다. 학습자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활동, 곧 메타인지적 자기 성찰을 능동적으로 일으킨다는 점이다. 청소년기는 자기 사고와 행위를 대상화하여 성찰할 수 있는 메타인지(metacognition) 능력이 본격적으로 발달하여 청소년기 후반에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고 성인기에 안정화되는 시기이다(Weil et al., 2013). 가톨릭 전례는 미사의 양심 성찰, 고해성사를 통한 자기 점검, 미사 후의 침묵과 묵상 같은 실천을 통해 학습자가 자기 사고·감정·행위를 능동적으로 대상화하고 성찰하는 기회를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이때 전례적 자기 성찰은 단순한 도덕적 점검에 머무르지 않고, 학습자가 자기 자신과 자기 삶의 의미를 능동적으로 해석하는 메타인지 활동으로 작동한다. AI 시대의 학습자가 알고리즘이 매개하는 즉시적 자극의 흐름에 점차 수동적으로 적응해 가는 환경 안에서, 전례적 자기 성찰의 반복은 학습자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 삶을 해석하는 능동적 주체로 자라가는 인격적 토대가 된다.

4. 관계 차원의 형성: 공동체 활동과 실천 공동체

본당에서 진행되는 청소년 단체, 캠프, 봉사 활동, 또래 모임 등은 관계적 형성의 자리이다. 이러한 형성을 분석하는 데에는 실천 공동체(communities of practice) 이론이 강력한 틀을 제공한다(Wenger, 1998: 4-5). 이 이론에 따르면 학습은 사회적 실천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며, 학습자는 그 과정에서 의미·실천·공동체·정체성의 네 차원에서 동시에 형성된다. 본당 청소년 공동체는 바로 이러한 실천 공동체로 작동할 잠재력을 지닌다. 다만 Wenger의 이론은 공동의 실천(joint enterprise)이 분명하게 정의된 영역에서 가장 강력하게 작동하는데, 한국 본

당의 청소년 공동체는 공동의 실천이 행사 일정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본당 청소년 공동체가 실천 공동체로 작동하려면, 행사 일정의 누적이 아니라 청소년이 본당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신앙적 실천이 무엇인지가 사목적으로 자각되어야 한다.

관계적 형성은 AI 시대의 관계적 축소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응답이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2025)가 진단한 외로움의 위기, Office of the U.S. Surgeon General(2023)이 진단한 외로움과 고립의 전염병, Turkle(2011)이 분석한 알고리즘적 관계의 빈약함, 그리고 「Antiqua et Nova」가 우려한 AI 동반자 의존의 위험, 곧 청소년이 인간관계를 챗봇과 하듯 거래 방식으로 이해하게 될 위험(AN, 60)에 대해, 본당 공동체 안의 실제 관계 형성이 그 응답이 된다. AI를 밀접히 사용하는 이들의 정서적 애착과 인간관계 대체 가능성을 보고한 경험 연구들은(Skjuve et al., 2021; Xie & Pentina, 2022) 이러한 우려가 이미 진행 중인 변화임을 보여 준다. 미국 전국 청소년 종교성 조사(National Study of Youth and Religion)는 청소년기에 신앙 공동체에 깊이 속한 청소년이 영적·정서적·사회적 안녕의 여러 지표에서 일관되게 높은 수준을 보이며, 부모·또래·본당 어른과의 관계망이 청소년 신앙 형성의 결정적 변수임을 실증한다(Smith & Denton, 2005: 218-258). 본당 공동체가 청소년에게 어떤 관계를 마련해 주는가는 사목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의 인격 형성 자체를 좌우하는 신앙교육학적 변수이다.

가톨릭 신앙은 본질적으로 공동체적·교회적 차원을 지니며, 인간은 그리스도의 신비체로서의 교회 안에서 자기의 참된 정체성을 발견한다. 드 루박은 「가톨릭시즘」(Catholicisme) 1장에서 그리스도의 신비체의 초자연적 일치가 인류 전체의 자연적 일치 위에 세워진다고 분석하였고(de Lubac, 1988: 25), 11장에서 참된 일치란 서로를 녹이지 않고 서로를 통해 각자가 완성되도록 이끄는 양식임을 보였다(de Lubac, 1988: 330). AI 시대의 알고리즘적 개인화가 청소년의 인류적 일치 경험을 침식하는 환경 안에서, 본당 공동체는 인류의 자연적 일치 위에 그리스도의 신비체적 일치를 살아내는 자리이자 청소년이 친교 안에서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는 자리이다. 「Antiqua et Nova」가 삼위일체 하느님의 자기 증여에 근거를 둔 인간 관계성으로 정식화한 *communio personarum* 신학은(AN, 19) 본당 공동체에서 추상적 명제가 아니라 구체적 형성의 사건이 된다.

이러한 분석은 한국 본당의 청소년 공동체 활동에 한 가지 방향성을 시사한다. 청소년 공동체 활동이 행사 일정을 채우는 차원에 머무르거나 신부·수녀·교리교사·학부모·또래 모임의 연결이 끊어진 채 운영될 때, 청소년의 관계적 형성은 환대적 친교가 아니라 일회적 행사로 좁아진다. 핵심은 행사 참여 횟수가 아니라 청소년이 본당 안에서 자신을 기억해 주고 기다려 주며 함께 성장하는 관계망의 경험이며, 본당 청소년 공동체 활동은 본당 어른과 또래 사이에서 인격적 동반의 경험이 누적되는 관계망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관계 차원의 형성에는 또 한 가지 핵심이 있다. 학습자가 환대적 공동체 안에서 자기 자신을 능동적으로 발견하고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자라간다는 점이다. 청소년의 인격 강

점(character strengths) 가운데 희망·신앙심·사랑(hope·religiousness·love)이 신학적 강점(theological strengths) 요인으로 묶이며(Park & Peterson, 2006), 이러한 인격 강점의 향상이 청소년의 주관적 안녕과 학교 적응에 종단적으로 관련된다는 점이 실증된 바 있다(Shoshani & Slone, 2013). 본당 청소년 공동체는 학습자가 자기 은사를 발견하고 그것을 봉사·전례 봉사·또래 모임 및 단체 활동을 통해 표현하는 자리이며, 그러한 표현의 누적은 자기 인격에 대한 능동적 자각을 형성한다. 더 나아가 본당 공동체 안에서 청소년은 알고리즘이 매개하는 비대면적·개인화된 환경의 수동적 수신자에 머무르지 않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타자와 어떻게 함께 살 것인가를 배워 가는 능동적 주체로 자란다. 이러한 성장이 누적될 때 학습자는 단순한 본당 신자가 아니라 환대와 인격적 동반의 경험을 자기 안에 새긴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형성되는 자리이며, 이는 AI 시대의 거래적·개인주의적 관계 양식에 대한 가장 깊은 신앙교육학적 응답이 된다.

V. 논의 및 결론

본 장은 IV장의 분석이 오늘날 본당 청소년 신앙교육에 요청하는 방향성을 통합·전례·관계 차원에서 차례로 논의하고, 이를 본 연구의 결론으로 종합한다. 이 방향성에 관한 논의는 단순한 사목 프로그램의 차원이 아니라, 한 인격이 평생을 살아갈 인간학적·신앙적 토대가 형성되는 시기에 본당이 어떤 형성 환경을 제공하며 그 환경이 학습자를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능동적 인격으로 형성하는 자리인가의 차원에서 자리매김된다.

1. 통합 차원의 방향성: 정보의 자리에서 의미의 자리로

본당 신앙교육은 정보 전달의 영역인가, 인격 형성의 자리인가라는 질문은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AI 시대에 이르러 회피할 수 없는 질문이 되었다. 교리 정보의 검색과 체계적 정리라는 기능적 차원에서 AI의 수행 능력은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그러나 같은 흐름의 실증 연구가 비판적 사고의 약화와 인지 노동의 성격 변화를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는 가운데(Gerlich, 2025; Lee et al., 2025), 「Antiqua et Nova」는 참된 교육이 사실과 지적 기술의 단순한 전달이 아니라 인격의 통합적 형성을 목표로 하며 AI의 기능적 확장이 이를 대체할 수 없다고 분명히 한다(AN, 77-79). 이로써 본당 신앙교육의 위치는 정보 전달이 아닌 인격 형성의 차원에 자리한다.

IV장에서 분석한 Groome(1980)의 공유 그리스도교 실천(Shared Christian Praxis)의 해석적 순환은 AI 시대의 인지적 축소에 대해 뚜렷한 교육학적 대응을 이룬다. AI 시대의 인지적 축소

가 학습자를 의미를 받는 존재로 머무르게 한다면, Groome의 해석적 순환은 학습자가 자기 삶의 맥락에서 출발하여 그리스도교 신앙 전통의 이야기와 비전을 만나고, 다시 자기 실천으로 돌아오는 활동의 주체가 되도록 이끈다. 학습자가 자기 삶의 의미를 신앙 안에서 짓는 해석적 주체로 형성된다는 점에서, 주일학교의 통합적 형성은 AI 시대의 인지적 축소에 대한 신앙교육학적 응답의 가장 분명한 자리이다. 다만 이 방향이 추상적 명제로 머물지 않으려면 한 가지를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 통합 차원의 방향은 일방적 교리 제공이 아니라 청소년의 삶을 더 깊이 체화하는 방향이어야 하며, 그 중심에 그리스도교 신앙 전통의 이야기와 비전이 만나는 자리가 있어야 한다. 곧 주일학교는 학습자가 학업 부담과 진로 불안, 관계 경험과 디지털 일상이라는 구체적 삶의 자리에서 출발하여, 신앙 전통이 간직해 온 이야기,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교회의 기억과 성인의 증언을 만나도록 이끄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학습자가 그 만남 안에서 자기 삶의 물음을 신앙의 언어로 해석하고 다시 자기 일상으로 돌아갈 때, 통합 차원의 형성은 추상적 명제가 아니라 학습자의 삶 안에서 살아내는 사건이 된다.

2. 전례 차원의 방향성: 매개된 경험에서 직접적 체화로

전례 차원의 신앙교육학적 방향은 다음에서 확인된다. AI 시대의 체화 축소가 매개된 경험으로 청소년의 일상을 채울 때, 본당의 미사와 성사 참여는 그에 대한 대안적 시간성·신체성·감각성을 청소년에게 제공한다. AI 시대가 즉시성과 매개된 경험을 잠재적 교육과정으로 청소년에게 형성한다면, 전례는 기다림과 직접적 감각을 잠재적 교육과정으로 형성한다(Sacrosanctum Concilium: 10; Jackson, 1968). 이는 파르디니가 분석한 전례 신학의 핵심, 곧 전례에서 몸이 영혼의 자연스러운 상징으로 작동하면서 학습자가 자기 몸과 시간을 통해 신앙을 살아낸다는 통찰과 직접 연결된다(Guardini, 1998).

다만 청소년이 미사를 의무적 참석의 시간으로만 경험할 때 전례의 형성적 잠재력은 충분히 작동하지 않으며, 따라서 몇 가지 사목적 조건이 함께 자각되어야 한다. 첫째, 청소년의 발달 단계에 맞는 언어로 전례의 의미를 해석해 주는 강론이 마련되어야 한다. 청소년기 후반에 본격적으로 발달하는 메타인지 능력(Weil et al., 2013)에 비추어 볼 때, 사제의 강론은 학습자가 자기 신앙 경험을 성찰하는 자리를 열어 준다. 둘째, 청소년이 독서, 시편 응송, 봉헌, 성가를 비롯한 전례 봉사에 직접 참여할 자리가 마련될 때, 전례는 청소년이 자기 몸과 목소리로 신앙을 살아내는 체화적 형성의 자리가 된다. 이는 「전례 헌장」이 명시한 능동적 참여 원칙의 청소년 사목적 구체화이다. 셋째, 미사 전후의 침묵과 묵상, 고해성사를 통한 자기 성찰은 청소년에게 자기 삶의 의미를 능동적으로 해석하는 메타인지 활동의 반복적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조건이 함께 작동할 때, 전례는 청소년에게 의무적 참석의 시간이 아니라 자기를 능동적으로 살아내는 형성의 자리로 경험된다.

3. 관계 차원의 방향성: 거래적 관계에서 환대적 공동체로

관계 차원의 신앙교육학적 방향은 「Antiqua et Nova」가 우려한 위협에 대한 응답으로 자리 잡는다. 그 위협은 AI 동반자가 청소년의 모든 정서적 요구에 맞춰 응답함으로써 청소년이 인간관계를 거래 방식으로 이해하게 될 가능성이며(AN, 60), 이러한 우려는 이미 사용자 차원에서 진행 중인 변화로 확인된다(Skjuve et al., 2021; Xie & Pentina, 2022). 본당 공동체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타자와 어떻게 함께 살 것인가를 인격적으로 배우는 자리이며, AI 동반자가 결코 제공할 수 없는 비대칭적·비예측적·인격적 만남이 일어나는 자리이다.

관계 차원의 본질은 본당 청소년 공동체가 어떤 분위기와 구조를 갖추는가에 달려 있다. 그룹은 「Christian Religious Education」 10장에서 신앙교육 모임의 전체 분위기가 환영과 따뜻함과 열림의 분위기여야 하며, 이것이 곧 고대 그리스도교의 덕인 환대(hospitality)임을 분석함으로써 환대를 신앙교육의 본질적 토대로 자리매김하였다(Groome, 1980: 225-227). 그가 같은 책 3장에서 본당 신앙교육이 단순한 사목 행위를 넘어 하느님 나라의 정의와 평화와 자유의 신학적 지평 안에서 작동해야 한다고 분석한 작업과 결합될 때(Groome, 1980), 환대는 정의와 분리되지 않는 신앙교육의 자리로 자리잡는다. 후속 작업에서 그룹은 이 통찰을 가톨릭 학교와 본당의 가톨릭적 분위기로 발전시켰으며, 그 안에서 환영(welcome)과 포용(inclusivity)은 환대의 두 표현 양식으로 통합된다. 그룹은 「What Makes Education Catholic」 3장에서 가톨릭(catholic)의 그리스어 어원 *katholikos*가 ‘전체에 따라’, 곧 ‘보편적으로’를 뜻한다는 분석에 근거하여, 어떤 학교나 공동체가 가톨릭이라고 불리려면 모두에게 온전히 환대적이어야 함을 보였다. 곧 환대는 가톨릭 신앙교육의 우연적 분위기가 아니라 본질적 정의이다. 그러한 환대적 공동체 안에서 학습자는 자기 재능과 은사를 가장 자유롭게 발휘할 수 있고, 자기에게 주어진 부르심에 따라 살아갈 가능성을 더 잘 발견하게 된다(Groome, 2021).

본당 청소년 공동체의 신앙교육학적 핵심은 결국 다름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환대적 분위기, 곧 생명을 주는 가톨릭 교육 풍토(Catholic Education Climate)에 있다. 청소년 학습자가 그러한 공동체 안에서 자기 은사와 부르심을 자유롭게 드러낼 수 있을 때, 본당 공동체는 AI 동반자의 거래적 관계와 결정적으로 구별되는 인격적 친교의 자리가 된다. 곧 드 뤼박의 교회론적 인간학(de Lubac, 1988: 25-30, 326-330)과 「Antiqua et Nova」의 관계성 신학에 토대를 둔(AN, 19) *communio personarum*이 추상적 명제가 아니라 구체적 형성의 사건이 되는 자리이다. 다만 본당이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따뜻한 포대 공동체를 제공하지 못하고 본당 어른과의 인격적 동반이 일어나지 않을 때, 이러한 신학적 깊이는 청소년의 삶에 닿지 못한다. 지금까지 살핀 통합·전례·관계 차원의 방향은 결국 하나의 신앙교육학적 통찰로 모이며, 이어지는 종합에서 본 연구의 핵심 명제로 정리된다.

4. 종합: 가톨릭 본당 청소년 신앙교육의 교육학적 의미

본 연구가 답하고자 한 질문은 ‘AI 시대 본당 청소년 신앙교육은 왜 여전히 필요한가’가 아니라, ‘AI 시대에 본당 청소년 신앙교육은 어떤 인간 형성을 지향하는가? 그리고 그러한 인간상을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가?’였다. 본 연구의 답은 「Antiqua et Nova」의 인간학적 요청에 닿아 있는 통합적·전례적·관계적 인격의 형성에 있으며, 그 핵심은 학습자들 수동적 존재에서 능동적 인격으로 전환시키는 데 있다. 통합 차원에서 본당 주일학교는 AI 시대의 인지적 축소에 맞서 학습자가 의미를 능동적으로 해석하는 주체로 형성되는 환경이며, 전례 차원에서 미사와 성사 참여는 매개된 경험에 맞서 학습자가 자기 삶의 의미를 전례적 시간 안에서 능동적으로 성찰하고 응답하는 주체로 형성되는 자리이고, 관계 차원에서 본당 공동체는 거래적 관계 모델에 맞서 학습자가 환대적 친교 안에서 자기 은사를 발견하고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자라가는 자리이다. 곧 본당 청소년 신앙교육은 대면과 비대면의 단순한 대비를 넘어, AI 시대 학습자가 자기 사고와 감각과 관계를 능동적으로 살아내는 인격으로 형성되는 자리이다. 이때 AI는 청소년 형성 환경 축소의 단독 원인이라기보다 이미 진행되어 온 디지털 매개화를 개인화·친밀화의 방향으로 가속하는 환경적 변수이며, 본당 청소년 신앙교육의 응답 역시 AI의 거부나 추방이 아니라 AI 시대의 인간 형성 환경 안에서 인격이 능동적으로 자라는 자리를 교육학적으로 자각하고 사목적으로 설계하는 작업이다.

본 연구는 서론에서 제시한 세 가지 연구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첫째, 오늘날 청소년 형성 환경의 변화는 인지적 외주화·체화적 경험의 약화·관계적 만남의 대체로 인간 경험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작동하며, 이러한 변화는 「Antiqua et Nova」의 통합적 인간학에 비추어 영적·인지적·체화적·관계적 단일체로서의 인간 이해를 흔드는 환경적 압력으로 진단되었다. 둘째, 「Antiqua et Nova」의 인간학적 요청은 가톨릭 인격주의 전통(보이티와·파르디니·드 뤼박) 안에서 통합적·전례적·관계적 인격 형성의 신앙교육학적 준거로 심화되었다. 셋째, 본당 청소년 신앙교육의 세 영역, 곧 주일학교·미사와 성사 참여·공동체 활동은 각각 말씀의 해석적 만남, 전례적 참여를 통한 체화적 자기 성찰, 환대적 공동체 안의 인격적 친교를 통해 AI 시대 청소년의 능동적 인격 형성에 기여한다. 다만 이러한 기여는 본당이 자기의 형성적 자리를 교육학적으로 자각하고 사목적으로 설계할 때 비로소 실현된다.

이러한 세 영역의 기여는 앞서 살핀 사목적 방향, 곧 주일학교를 해석적 순환의 자리로, 청소년 미사를 능동적 참여의 전례적 형성 환경으로, 본당 공동체를 환대와 인격적 동반의 관계망으로 설계하는 과제로 구체화된다.

본 연구의 기여는 세 가지이다. 첫째, 「Antiqua et Nova」를 신앙교육학의 관점에서 읽어냄으로써 이 문헌을 학술적으로 활용할 한 갈래 길을 열었다. 둘째, 신학적 자원과 일반 교육학 이론을 함께 활용하는 학제적 분석 모델을 제시하면서도, 그 이론들이 본당이라는 신앙 형성

환경에서 갖는 한계를 제시하고, 그 한계를 가톨릭 인격주의 전통으로 보완하였다. 셋째, 「Antiqua et Nova」의 체화적 차원을 신앙교육학의 관점에서 전례적 차원으로 발전시킴으로써, 본당 청소년 신앙교육이 지닌 고유한 형성적 자리를 학술적으로 밝혔다. 다만 본 연구는 이론적 문헌연구로서 본당 청소년 학습자·교리교사·사목자·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경험 자료를 직접 수집하지는 못하였다. 한국 천주교회의 통계와 국내 청소년 사목 선행연구를 함께 다루기는 하였지만, 한국 본당 청소년 신앙교육 현장에 대한 본격적인 양적·질적 조사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는다. 본 연구가 제안한 통합적·전례적·관계적 인격 형성의 논의 준거는 앞으로의 실증 연구, 특히 현대적 공동체의 신앙교육학적 함의를 양적·질적으로 검증하는 후속 연구를 통해 더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

「Antiqua et Nova」가 제목으로 삼은 옛것과 새것의 만남은 본당 청소년 신앙교육 안에서 가장 구체적인 형태로 실현된다. 새것이 인간 형성의 환경을 좁혀 가는 시대에, 옛것을 지켜온 본당의 신앙교육적 실천, 곧 주일학교의 말씀 교육, 미사와 성사 참여, 공동체 활동은 AI 시대 인간 경험 축소에 대한 뚜렷한 대안의 자리로 남아 있다. 결국 AI 시대 본당 청소년 신앙교육의 과제는 새로운 기술에 밀려 사라지지 않는 방법을 찾는 데 있지 않고, 본당이 오래전부터 살아온 통합적·전례적·관계적 형성의 지혜를 오늘날 환경 안에서 다시 교육학적으로 자각하고 사목적으로 설계하는 데 있다. 학교가 청소년의 일상을 대학교 입시를 위한 시간 정도로 좁혀 가는 시대에, 본당이 그러한 인격 형성의 자리를 살아낼 수 있는가는 본당 사목의 질문을 넘어 한국 사회가 청소년에게 어떤 인격 형성의 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가의 질문이며, 본당 청소년 신앙교육은 그러한 의미에서 AI 시대의 주변적 사목 영역이 아니라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가톨릭 신앙교육의 핵심적 응답이다.

Reference

- Benedict XVI. *Caritas in Veritate*.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옮김 (2011). 진리 안의 사랑. 서울: 한국천주교주교회의.
- Dicastery for the Doctrine of the Faith & Dicastery for Culture and Education (2025. 1. 28.). *Antiqua et Nova: Not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Human Intelligence*. Vatican City: Libreria Editrice Vaticana. Retrieved 2025. 1. 28., from https://www.vatican.va/roman_curia/congregations/cfaith/documents/rc_ddf_doc_20250128_antiqua-et-nova_en.html
- Franciscus. *Fratelli Tutti*.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옮김 (2021). 모든 형제들. 서울: 한국천주교주교회의.

- Franciscus. *Laudato Si'*.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옮김 (2015). 찬미받으소서. 서울: 한국천주교주교회의.
- Paulus VI. *Populorum Progressio*.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옮김 (2005). 민족들의 발전. 서울: 한국천주교주교회의.
- Second Vatican Council (1963). *Sacrosanctum Concilium*.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옮김 (2010).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 「거룩한 공의회」. In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서울: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5-72.
- Second Vatican Council (1965). *Gaudium et Spes*.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옮김 (2010).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 헌장 「기쁨과 희망」. In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서울: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9-321.
- Blakemore, S. J. & Mills, K. L. (2014). Is Adolescence a Sensitive Period for Sociocultural Processing?. *Annual Review of Psychology*, 65, 187-207.
<https://doi.org/10.1146/annurev-psych-010213-115202>
-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s by Nature and Desig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Buttiglione, R. (1997). *Karol Wojtyła: The Thought of the Man Who Became Pope John Paul II*. Grand Rapids, MI: Eerdmans. Guietti, P. & Murphy, F. (trans.) (Original work published 1982).
- Cho, W. K. & Hwang, W. W. (2025). The Direction of Student Record-Based Admission Evaluation in Light of the 2028 College Admissions Reform. *The Journal of Curriculum and Evaluation*, 28(2), 189-216. <https://doi.org/10.29221/jce.2025.28.2.189>
- Coombs, P. H. & Ahmed, M. (1974). *Attacking Rural Poverty: How Nonformal Education Can Help*.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de Lubac, H. (1988). *Catholicism: Christ and the Common Destiny of Man* (L. C. Sheppard & E. Englund, Trans.). San Francisco: Ignatius Press. (Original French work published 1938; rev. 4th ed., Paris: Cerf, 1947. English translation originally published 1950, London: Burns and Oates.)
- Floridi, L. (ed.) (2015). *The Onlife Manifesto: Being Human in a Hyperconnected Era*. Cham: Springer.
- Gerlich, M. (2025). AI Tools in Society: Impacts on Cognitive Offloading and the Future of Critical Thinking. *Societies*, 15(1), 6. <https://doi.org/10.3390/soc15010006>
- Groome, T. H. (1980). *Christian Religious Education: Sharing Our Story and Vision*. San Francisco: Jossey-Bass. (1999 paperback ed., originally published 1980, Harper & Row.)

- Groome, T. H. (2021). *What Makes Education Catholic: Spiritual Foundations*. Maryknoll, NY: Orbis Books.
- Guardini, R. (1994). *Letters from Lake Como: Explorations on Technology and the Human Race* (G. W. Bromiley, Trans.). Grand Rapids, MI: Eerdmans. (Original work published 1926; letters originally serialized in *Schildgenossen*, 1923-1925.)
- Guardini, R. (1998). *The Spirit of the Liturgy* (A. Lane, Trans.). New York: The Crossroad Publishing Company. (Original work published 1918)
- Hwang, W. W. & Cho, W. K. (2024). 2028 Reorganization of the College Entrance System: Quantitative Evaluation Direction of Student Sub-Curricular Admissions. *Journal of Higher Educational Research*, 7(1), 131-163. <https://doi.org/10.22838/jher.2024.7.1.131>
- Jackson, P. W. (1968). *Life in Classrooms*.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Jeong, J. (2023). Significance and Future Task of the Directory for Youth Ministry in the Catholic Church in Korea. *Theological Perspective*, 220, 96-131. <https://doi.org/10.22504/TP.2023.03.220.96>
- Kim, H. S. (2024). Human-Generative AI Collaboration: Exploring the Learning Experiences of Pre-Service Religious Education Teachers. *Korea Presbyterian Journal of Theology*, 56(3), 327-354.
- Kim, J. Y. (2017). The Relationship among Loneliness, Stress, and Smartphone Addiction of Adolescents in the Era of Digitaliza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9), 335-343. <https://doi.org/10.14400/JDC.2017.15.9.335>
- Kolb, D. A. (1984). *Experiential Learning: Experience as the Source of Learning and Development*.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Kwak, J. S. (2022). The New Directory for Catechesis and Orientations for Youth Catechesis in the Korean Church. *Theology and Philosophy*, 42, 193-238. <https://doi.org/10.16936/theoph..42.202212.193>
- Lave, J. & Wenger, E. (1991). *Situated Learning: Legitimate Peripheral Particip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ee, H. P., Sarkar, A., Tankelevitch, L., Drosos, I., Rintel, S., Banks, R. & Wilson, N. (2025). The Impact of Generative AI on Critical Thinking: Self-Reported Reductions in Cognitive Effort and Confidence Effects from a Survey of Knowledge Workers. *Proceedings of the 2025 CHI Conference on Human Factors in Computing Systems*. <https://doi.org/10.1145/3706598.3713778>
- Lee, J. O. (2018). The Development of the Education of Young People in the Catholic Church:

- A Reconsideration of the Basic Fundamental Formation of Youth Ministry in the Korean Catholic Church. *Theological Perspective*, 202, 91-127.
<https://doi.org/10.22504/TP.2018.09.202.91>
- Mezirow, J. (1991). *Transformative Dimensions of Adult Learning*. San Francisco: Jossey-Bass.
- Nam, S. W. (2023). Implications for the Direction of Christian Education in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74, 107-134.
<https://doi.org/10.17968/jcek.2023..74.005>
- Nam, S. W. (2024). Development of a Church Education Program Utilizing Project-Based Generative AI: Focusing on Youth Retreats.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79, 97-120. <https://doi.org/10.17968/jcek.2024..79.005>
- Office of the U.S. Surgeon General (2023). *Our Epidemic of Loneliness and Isolation: The U.S. Surgeon General's Advisory on the Healing Effects of Social Connection and Community*.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 Ok, J. H. (2024). Efficient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ChatGPT in Educational Ministry.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78, 57-85.
<https://doi.org/10.17968/jcek.2024..78.002>
- Park, M. L. (2025). A Study on the Use of Generative AI for Youth Emotional Education: With a Focus on Christian Education. *Theology and Praxis*, 94, 441-465.
<https://doi.org/10.14387/jkspth.2025.94.441>
- Park, N. & Peterson, C. (2006). Moral Competence and Character Strengths among Adolescents: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Values in Action Inventory of Strengths for Youth. *Journal of Adolescence*, 29(6), 891-909.
<https://doi.org/10.1016/j.adolescence.2006.04.011>
- Pascoe, M. C., Hetrick, S. E. & Parker, A. G. (2020). The Impact of Stress on Students in Secondary School and Higher Edu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Adolescence and Youth*, 25(1), 104-112. <https://doi.org/10.1080/02673843.2019.1596823>
- Ratzinger, J. (2000). *The Spirit of the Liturgy* (J. Saward, Trans.). San Francisco: Ignatius Press.
- Ryan, R. M. & Deci, E. L. (2020).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 from a Self-Determination Theory Perspective: Definitions, Theory, *Practices, and Future Directions*.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61, 101860. <https://doi.org/10.1016/j.cedpsych.2020.101860>
- Shoshani, A. & Slone, M. (2013). Middle School Transition from the Strengths Perspective: Young Adolescents' Character Strengths, Subjective Well-Being, and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4(4), 1163-1181. <https://doi.org/10.1007/s10902-012-9374-y>

- Skjuve, M., Følstad, A., Fostervold, K. I., & Brandtzaeg, P. B. (2021). My Chatbot Companion - A Study of Human-Chatbot Relationships.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Computer Studies*, 149, 102601. <https://doi.org/10.1016/j.ijhcs.2021.102601>
- Smith, C. & Denton, M. L. (2005). *Soul Searching: The Religious and Spiritual Lives of American Teenager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Thompson, J. B. (1995). *The Media and Modernity: A Social Theory of the Media*. Cambridge: Polity Press.
- Turkle, S. (2011). *Alone Together: Why We Expect More from Technology and Less from Each Other*. New York: Basic Books.
- Twenge, J. M., Spitzberg, B. H. & Campbell, W. K. (2019). Less In-Person Social Interaction with Peers among U.S. Adolescents in the 21st Century and Links to Lonelines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36(6), 1892-1913. <https://doi.org/10.1177/0265407519836170>
- Weil, L. G., Fleming, S. M., Dumontheil, I., Kilford, E. J., Weil, R. S., Rees, G., Dolan, R. J. & Blakemore, S.-J. (2013). The Development of Metacognitive Ability in Adolescence. *Consciousness and Cognition*, 22(1), 264-271. <https://doi.org/10.1016/j.concog.2013.01.004>
- Wenger, E. (1998). *Communities of Practice: Learning, Meaning, and Ident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ilson, M. (2002). Six Views of Embodied Cognition. *Psychonomic Bulletin & Review*, 9(4), 625-636. <https://doi.org/10.3758/BF03196322>
- Wojtyła, K. (1979). *The Acting Person* (A. Potocki, Trans.). Dordrecht: D. Reidel. (Original work published 1969)
- Wojtyła, K. (1993). *The Family as a Community of Persons*. In K. Wojtyła, *Person and Community: Selected Essays* (T. Sandok, Trans.) (pp. 315-327). New York: Peter Lang. (Original work published 1974)
- World Health Organization (2025). *From Loneliness to Social Connection: Charting a Path to Healthier Societies. Report of the WHO Commission on Social Connection*.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 Xie, T. & Pentina, I. (2022). *Attachment Theory as a Framework to Understand Relationships with Social Chatbots: A Case Study of Replika*. Proceedings of the 55th Hawaii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ystem Sciences, 2046-2055. <https://doi.org/10.24251/HICSS.2022.258>
- Yoon, M. K. (2022). The Pastoral Application of ‘Accompaniment’ with a Clearer

- Understanding of Its Concept as Expressed in the Directory for the Youth Ministry of the Korean Catholic Church: Based on Don Bosco's Pedagogy. *Theological Perspective*, 219, 131-174. <https://doi.org/10.22504/TP.2022.12.219.13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4). 2024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대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Translated in English)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24). *2024 Survey on Smartphone Overdependence*. Daegu: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 교육부 (2023).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확정안 (2023. 12. 27. 보도자료). 세종: 교육부. (Translated in English) Ministry of Education (2023). *Finalized Plan for the 2028 College Entrance System Reform Preparing for the Future Society* (Press Release, December 27, 2023). Sejong: Ministry of Education.
- 여성가족부 (2024). 2024년 청소년 미디어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 서울: 여성가족부. (Translated in English)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24). *Results of the 2024 Survey on Youth Media Use Habits*. Seoul: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 (2024). 한국 천주교회 통계 2023 분석보고서. 서울: 한국천주교주교회의. (Translated in English) Catholic Pastoral Institute of Korea (2024). *Analytical Report on Statistics of the Catholic Church in Korea 2023*. Seoul: Catholic Bishops' Conference of Korea.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2021). 한국인의 종교 1984-2021: (1) 종교 현황. 서울: 한국갤럽조사연구소. (Translated in English) Gallup Korea (2021). *Religion of Koreans 1984-2021: (1) Religious Status*. Seoul: Gallup Korea.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26). 한국 천주교회 통계 2025. 서울: 한국천주교주교회의. (Translated in English) Catholic Bishops' Conference of Korea (2026). *Statistics of the Catholic Church in Korea 2025*. Seoul: Catholic Bishops' Conference of Korea.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청소년사목위원회 (2021). 한국 천주교 청소년 사목 지침서. 서울: 한국천주교주교회의. (Translated in English) Committee for Youth Ministry of the Catholic Bishops' Conference of Korea (2021). *Guidelines for Catholic Youth Ministry in Korea*. Seoul: Catholic Bishops' Conference of Korea.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1).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Translated in English)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11). *A Study on Support Measures for Promoting Mental Health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 Seoul: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